



## 실증과 서사 접목한 다큐멘터리 두각 나타낸다

다큐멘터리기법 활용한 소설, 인문서 출간 활발해

미국 9·11 테러사태 이후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슬람, 테러 관련 다큐멘터리를 쏟아내는 등 다큐멘터리 붐이 일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이토록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려지거나 왜곡된 역사의 배후를 추적하는 '진실의 힘'과 현실과 삶을 밀착시킨 생생한 현장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출판분야에서도 인문서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기법이 활발히 시도돼 눈길을 끈다.

### 읽는 역사에서 보고 체험하는 역사로

다큐멘터리기법은 단연 역사장르에서 빛을 발한다. 1990년대 초는 이런 기법이 출판에 활발하게 접목된 시기다. 특히 각 방송사가 방영한 자연다큐, 역사다큐, 역사드라마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들이 역사를 읽는 새로운 기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주목하게 됐고, 글쓰기 장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1990년대 중후반에 출간된 《정도전을 위한 변명》(조유식), 《사도세자의 고백》(이덕일, 이상 푸른역사) 등은 다큐와 소설을 접목시킨 역사교양서의 새로운 시도였다. 그 후 《신의 지문》(그레이엄 헨록, 이경덕, 까치), 《마왕퇴의 귀부인》《구룡배의 전설》(이상 웨난, 이익희, 일빛), 《나스카 유적의 비밀》(카르멘 로르바흐, 박영구, 푸른역사) 등 번역서 출간도 꾸준히 이어졌다. 글쓰기와 역사, 드라마와 다큐기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최근에 출간된 《고고학의 기밀문서》(루크 베르긴, 장혜경, 사람과사람), 《주구점의 북경인(전2권)》(리밍성 외, 심규호, 일빛) 등이 고고학 다큐멘터리의 계보를 잇는 책들이다.

TV를 통해 이미 인기를 검증받은 방송다큐

시리즈는 다큐멘터리와 종이책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역사를 바꾼 대사건들을 심층분석한 《쿠오바디스,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정초일, 푸른숲),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들의 신화를 벗긴 《역사의 지배자》(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윤순식, 오늘의책) 등은 독일 공영방송 ZDF의 역사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이라크, 이집트, 인도, 중국, 중앙아메리카 문명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인류 최초의 문명들》(마이클 우드, 강주헌, 중앙M&B)과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신비를 추적한 과학 다큐멘터리 《사이언스 어드벤처—우주》 시리즈(이언 니콜슨 외, 이충호, 다림)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수정·보완한 책들이다. 국내에선 KBS의 역사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이 같은 이름을 달고 시리즈로 세권을 선보였다.

이 책들은 미스터리와 르포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TV의 생생한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사진 등을 실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는 “역사와 다큐를 접목시킨 새로운 방식은 특정 한 시대와 인물, 사건을 밀도 있게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거시사에서 미시사로 전환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깔려 있는데, 기존의 역사서가 사료로만 실증된 역사를 담아낸 반면, 다큐멘터리기법은 다채로운 역사적 상상력에 실증적인 자료들을 첨부해 ‘읽는 역사’에서 ‘보고 체험하는 역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아예 다큐멘터리 소설을 표방한 책들도 있다. 선승 달마를 소재로 한 《행복한 달마》(이규행, 백암), 붓다가 고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

르는 과정을 추적한 《붓다》(해누리), 일본의 조선침략 과정을 추적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명성황후》(이상 유흥중, 현대문학북스), 아프카니스탄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증언한 《흙과 재》(아티크 라히미, 김주경, 동문선) 등이 그 면면이다. 독도를 의인화해 그 일대기를 추적한 《독도평전》(김탁환, 휴머니스트)도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글쓰기로 역사와 문학의 가로 지르기를 시도한다.

###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문시장 확대 이끌어

다큐멘터리 작가군의 형성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른바 ‘부지깽이 스캔들’로 비화된 칼 포퍼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쟁을 현장증언을 바탕으로 추적한 《비트겐슈타인은 왜?》(데이비드 에즈먼드 외, 김태환, 웅진닷컴), 이슬람 현지취재를 통해 무슬림의 진솔한 삶을 소개한 《나를 사로잡은 이슬람》(윤영관, 김영사), 스타시스템을 통해 방송메커니즘의 이면을 들춰낸 《스타메이커》(임종태, 창작시대), 비약적인 중국경제발전의 해답을 추적한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홍하상, 국일증권경제연구소) 등은 다큐멘터리 작가, 방송사 프로듀서, 다큐멘터리스트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예다.

중앙M&B 최부일 편집장은 “외국에선 이미 다큐멘터리기법이 출판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국내 필진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인문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옥순 기자